

## SKT, 5G 중간요금제 상품 다양화

맞춤형 요금제 4종 출시…청년·시니어 요금제도

SK텔레콤은 중간요금제 확대 등 5G 상품을 다양화한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중간요금제 베이직플러스(월 5만9000원)를 기본으로, 추가 데이터 옵션 4종 중 하나를 조합해 이용하는 '5G 맞춤형 요금제'를 5월 1일 선보인다. 월 3000원(+13GB), 5000원(+30GB), 7000원(+50GB), 9000원(+75GB) 등이다. 원하는 시점에 1회성으로 선택(월 기준)할 수도 있고, 특정 옵션을 매월 자동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자동 적용의 경우 선택약정할인이나 결합할인 혜택을 합산 요금 기준으로 동일하게 적용 받을 수 있다. 이번 맞춤형 요금제 출시로 선택할 수 있는 5G 일반 요금제는 8종에서 12종으로 확대된다.

SK텔레콤은 6월 1일에는 만 34세 이하 고객을 위한 '0(영)청년 요금제' 7종과 '0(영)청년 맞춤형 요금제' 4종을, 앞서 이달 30일에는 만 65세 이상 시니어 고객을 위한 신규 요금제 3종을 출시한다.

김지형 SK텔레콤 통합마케팅전략담당은 "고객의 다양한 이용패턴과 니즈를 고려해 고객 눈높이에 맞는 5G 요금제를 선보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명근 기자

## 롯데제과, '롯데웰푸드'로 사명 변경



롯데제과가 4월 1일 1967년 창사 이후 56년 만에 사명을 롯데웰푸드(Well Food)로 바꾼다. 새 사명인 롯데웰푸드는 제과 기업에 한정됐던 사업 영역의 확장성과 글로벌 종합식품기업의 정체성을 공고히 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회사 측은 "전 연령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제품을 제공하는 종합식품기업 이미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 제과 대신 푸드를 사용했다"며 "웰빙과 웰니스가 연상되는 웰이라는 키워드를 활용해 더 나은 먹거리와 행복한 삶을 전달하고 건강한 식문화를 선도하는 기업이라는 의미를 강조했다"고 했다.

## 힘찬병원, 30일부터 '어깨 운동 챌린지'



힘찬병원이 어깨 관절의 날인 30일 '힘찬병원과 함께하는 오·운·완(오늘 어깨 운동 완료) 챌린지'를 진행한다. 힘찬병원 유튜브 채널에서 소개하는 '일·삼·십(1일 3분 10회) 어깨 운동법'을 시청하고 따라하는 이벤트다. 이벤트 참여는 힘찬병원 공식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고, 영상 시청 후 어깨 운동법을 따라한 인증샷이나 인증 영상을 해시태그와 함께 개인 인스타그램에 업로드 하면 된다. 참여기간은 4월 30일까지며 응모자 중 20명을 뽑아 음료 쿠폰을 증정한다.

## 동화약품, 반려동물 헬스케어 '핏핏'에 투자

동화약품은 반려동물 헬스케어 솔루션 기업 핏핏에 50억 규모의 전략적 투자를 진행했다. 동화약품은 이번 전략적 투자를 통해 핏핏이 보유한 수십만 건의 반려동물 헬스케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동물의약품에 연구 개발할 계획이다. 이번 투자로 개발되는 의약품의 사업화 우선협상권도 확보했다. 핏핏은 지금까지 누적 600억 원 이상 투자유치를 이뤄내며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반려동물 토발 헬스케어 솔루션 기업이다. 동화약품은 최근 수년간 인수합병(M&A)과 자본투자에 활발히 나서고 있다.

편집 | 신하늬 기자 mythuki@donga.com

## '파월 매파 발언'에 글로벌 증시 하락세



23일(한국시간) FOMC 정례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는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왼쪽)과 서울 중구 하나은행 주식 전광판.



뉴시스

## 美연준, 베이비스텝…“물가·금융 안정 절충”

미국 기준금리 연4.75~5%로 상승  
美 은행 파산 사태에 금리 동결 제기  
파월 “인플레 목표치 갈 길 멀어”  
4월韓기준금리 인상 여부 관심 ↑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이하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23일(한국시간)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하는 베이비스텝을 단행했다. 이로써 미국의 기준금리는 연 4.5~4.75%에서 연 4.75~5%로 상승해 2007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 ●여전히 갈 길 먼 인플레이션 목표치

연준이 지난달에 이어 2연속 베이비스텝을 단행한 것은 물가 잡기와 금융 안정이란 두 목표를 절충한 성격으로 풀이된다. 연준은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목표로 지난해 6, 7, 9, 11월 4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한 번에 0.75%p 인상하는 자이언트스텝을 밟았지만, 물

가 상승세가 둔화할 조짐을 보이자 12월 빅스텝(한 번에 0.5%p 인상), 지난달 0.25%p 인상으로 속도 조절을 해왔다.

하지만 최근 인플레이션 둔화세가 주춤해지고 노동시장 과열도 여전하다는 경제지표가 잇따르면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8일 의회에 출석해 “미국의 최종적인 금리가 통화정책 입안자들이 이전에 전망했던 것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매파적(통화긴축 선호)”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후 실리콘밸리은행(SVB)과 시그니처은행 파산 사태가 발생하면서 상황이 변했다.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금융 불안의 이유로 거론되면서, 금리 동결 내지 인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다.

다만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에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파월 의장은 올해 말 금리 인하 전망에 대해 “올해 금리 인하는 우리의 기본 예상이 아니다. 오히려 금리를 더 올릴 필요가 있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며 “인플레이션을 장기 목표치인 2%로 낮추기 위해 여전히 갈 길이 멀다”고 했다.

이러한 파월 의장의 매파적 발언에 글로벌 증시와 암호화폐 등이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다. 미국 뉴욕증시의 경우,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530.49p(1.63%) 내린 3만2030.11,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65.90p(1.65%) 하락한 3936.97, 나스닥 지수는 190.15p(1.60%) 감소한 1만1669.96에 장을 마쳤다. 이는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미쳐 코스피는 등락을 반복하다 전 거래일보다 7.52p(0.31%) 소폭 상승한 2424.48, 코스닥은 1.24p(0.15%) 하락한 812.19에 마감했다.

암호화폐 시장도 예외가 아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업비트에서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1.02% 내린 3600만 원에, 알트코인의 대표주자인 이더리움은 전일 대비 1.12% 하락한 229만 원에 거래됐다.

## ●4월 한국은행의 선택에 관심 쏠려

이제 관심은 4월 11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인상 여부에 쏠리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23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기준

금리를 연 3.5%로 동결한 상황이다. 반면 이날 미국의 금리 상승으로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가 상당 기준 1.5%p에 이른다. 이는 2000년 5~10월 이후 22년 여 만에 최대 역전 폭이다. 이 경우 국내 증시와 채권 시장 등에서 더 높은 수익률을 쫓아 외국인 자본이 대거 유출되고, 원화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 또 환율 급등으로 인해 수입 물가가 오르고, 소비자물가가 상승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정부도 금융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세계 경제가 장기간 지속된 저금리 상황에서 벗어나 고강도 통화긴축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있는 과정”이라며 “미국 중소형 은행 위기와 같은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재연 및 실물경제 불확실성 확대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높은 경계심을 갖고 상황을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했다.

정정욱 기자 jiaay@donga.com

## 엔씨, 신작 ‘프로젝트M’ 공개…‘디지털 휴먼’ 김택진 대표 등장

인터랙티브 기반의 액션 게임 선배  
엔씨의 혁신적 AI·그래픽 기술 집약

엔씨소프트는 22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세계 최대 게임 개발자 컨퍼런스 'GDC 2023'에서 신작 '프로젝트M' 트레일러와 디지털 휴먼 기술을 처음 공개했다.

이날 에픽게임즈의 '스테이트 오브 엔리얼'에 파트너사로 참여한 엔씨의 윤송이 최고전략책임자(CSO)는 무대에 올라 프로젝트M을 소개했다. 엔씨가 개발 중인 인터랙티브 요소 기반 액



엔씨소프트가 'GDC 2023'에서 공개한 신작 '프로젝트M' 트레일러 영상에서 디지털 휴먼으로 등장한 김택진 대표.

션 어드벤처 콘솔 플랫폼 게임이다. 특히 이날 공개한 트레일러 영상에는 김택진 엔씨 최고경영자(CEO) 겸 최고창의력책임자(CCO)가 디지털 휴먼으로 등장한다.

영상 속 디지털 휴먼은 엔씨의 인공지능(AI) 기술에 아트, 그래픽 등 비주얼 기술 역량을 결합해 제작했다. 모든 대사는 AI 음성 합성 기술인 'TTS'로 구현했고, 표정 및 립싱크 애니메이션은 '보이스-투-페이스' 기술을 활용했다. 윤 CSO는 "프로젝트M은 엔씨소프트의 혁신적 AI와 그래픽 기술력을 집약해 개발 중인 신작이다"며 "엔리얼 엔진5에 엔씨의 AI 기술력을 더해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 스텔란티스 코리아, 25년까지 약 400억 투자…네트워크 강화 나서

푸조 새 브랜드 엠블럼·가이드 적용  
신규 딜러사 편입 등 서비스 품질 개선



스텔란티스 코리아가 푸조 브랜드의 네트워크 강화 및 안정화를 위해 대대적인 쇄신을 단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를 위해 2025년까지 약 400억을 투입해 푸조의 새로운 브랜드 엠블럼(사진)과 가이드를 적용한 기존 전시장 리노베이션

완료, 신규 전시장 포함 총 18곳의 세일즈 및 서비스 네트워크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스텔란티스 코리아는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KCC모빌리티, 신창모터스, 선일모터스, 프리마모터스 등 네 개의 신규 딜러사를 공격적으로 편입시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환경 조성의 발판을 마련했다. 현

재 선일모터스는 광주 전시장과 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KCC모빌리티는 강남 전시장과 성동 서비스센터를 운영 중이며 연내 서울 지역에 신규 서비스센터를 추가 오픈할 계획이다. 신창모터스와 프리마모터스는 각각 대구와 제주에 서비스센터를 운영 중이다. 추가로 연내 전시장을 새롭게 오픈할 예정이다.

푸조는 현재 전시장 9개, 서비스센터 13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올해 말까지 전시

장 12개, 서비스센터 15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2025년에는 전시장과 서비스센터를 각각 18개까지 늘린다.

제이크 아우만 스텔란티스 코리아 사장은 "한국 시장에서 푸조 브랜드를 통합한 이후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한 것이 바로 네트워크의 재정비를 통한 브랜드의 안정화 및 신뢰도 확보였다"면서 "인적, 물적 투자 의지가 강한 신규 딜러사들과 뜻을 함께하게 된 만큼 신속하고 강력하게 고객들이 달라진 서비스 품질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성범 기자 sereno@donga.com